

제 1회 『자유 101』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18년 8월 26일 경남 창원시 할리스커피에서

<자유 101>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논쟁의 많은 혼란 오류들에 관한 매드센 피리 박사의 개인적 기각이다. 그는 그것들이 왜 옳지 않은지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잘못된 역설들 가운데서 101개를 선택했다.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은 마치 그것들이 자명한 이치인 것처럼 매일 유포되고 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를 그렇게 많이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에서의 부의 분배의 추정치들은 종종 잘못됐다. 그것들은 편리하게 주식과 토지 재산을 계산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대해 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재정 지원 혜택(entitlements)을 종종 무시한다. 연금권은 종종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기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반면, 다른 추정치들은 주택에 귀속된 부를 고의로 빠뜨리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요 가치 항목이다. -중략- 부의 불균등한 소유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신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심과 독창력을 발휘하는데, 부의 축적은 자기들의 활동들에 대한 보상을 나타낸다. 자유 사회에서는, 설사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부를 가지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곧 넓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재산정도와 성향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하지만 재산이나 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는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험과 같은 상품은 훗날 아주 큰 재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의 재산이 현재 반영되기는 어렵다. 또한 자산 규모가 큰 자산가들은 보험을 선호하지 않기에 이런 부분에서도 재산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 혁명은 대중에게 가난과 비참함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했고, 종종 충분히 있지도 않은 빈약하고 기본적인 음식물을 먹고 살았다. 영양실조나 기아가 그랬듯이,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 흔했다.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더욱 현실적인 인상은 오늘날 가난한 국가들에서의 농업경제들을 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중략- 산업화로 노동은 더욱 효율적일 수 있게 되었고, 재화에 더 많은 가치를 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들은 더 많이 지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계화 생산의 보급과 함께, 임금 노동자들은 점차 더 나은 음식, 더 좋은 옷 -중략- 부를 창출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부유해질 수 있게 하고 단순한 생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은 산업 혁명이었다. 부 창출 과정은 점차 사회가 더 나은 공중위생과 사회적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사회가 일터에서 더 높은 안전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대신 그들을 교육시킬 만큼 충분히 가족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은 발생된 부였다.

자본과 부가 쌓이게 되면서 그다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다음이란 교육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터무니없이 열악해 보일지 모르지만, 문명의 최고정점에 있는 지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빈곤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빈곤의 원인이란 없다. 그것은 휴지상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상태이다. -중략- 그것은 에너지의 결여다. 비슷하게 빈곤은 부의 결여다. -중략-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고정된 양의 부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빈곤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의 너무 큰 몫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진다. 사실상 부는 창출되는데, 우리가 대규모로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은 오직 지난 250년 정도 동안뿐이다. 부는 생산과 기업심에 의해, 노동의 전문화에 의해 창출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환에 의해 창출된다.

빈곤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이다. 부는 창출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자신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옳다.’

-“국민들”이라고? 그것은 당신을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보호되고 싶은가? 우선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거나 보호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해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만약 국가의 과학자들이 국가에게 정제된 백설탕과 소금이 국민들의 건강에 나쁘다고 말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그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지도 모른다. -중략- 존 스튜어트 밀은 오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렇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만 국가가 그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그러나 위험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민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국가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험들에 직면하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매체원들이 부족하지 않기 때

문이다. -중략- [당신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규칙은 충고에 귀 기울이고, 당신 자신의 결정을 내리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큰 소득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소득 불평등은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시장 지향적 사회에서 경제적 보상은 정당한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의 정의 관념이나 도덕적 가치에 대응하지 않는다. -중략- 소득 불평등은, 나쁘기 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수요가 있는 활동들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다. 고소득의 전망에 자극되어 사람들은 야망과 성취에 이르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편익과 만족을 가져온다.

큰 소득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부나 소득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